일제시기 고려대장경 조사 및 인경 사업*

- 1910년대 보고서를 중심으로 -

양 혜 원**

1. 머리말
2.「補遺目錄」의 기원과 補遺板 인출 배경
3.「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
4.「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1) 내용 구성과 작성 주체
  2) 다양한 간행본의 종류
  3) 보고서 내 고려대장경 帙・種・卷數의 이해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대장경이란, 고려시대에 雕造한 대장경을 말하는데 주지하다시피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이 있다. 초조대장경은 소실되었으므로 현재의 고려대장경이란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수장된 고려후기의 재조대장경을 지칭한다. 이는 팔만대장경이나 해인사 대장경 등으로도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대장경이 새겨진 版木을 지칭하며, 이를 종이에 찍어내는 작업을 印經 혹은 印出이라 하고, 종이에 찍어낸 대장경을 그 印經本, 印出本이라 한다.[1] 판목에 대해 해인사 대장경판, 해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19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9년 11월 15일에 개최한「동아시아 불교와 고려대장경」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논자에 따라 大藏經版 혹은 大藏經板을 印刷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사 고려대장경판이라고도 부른다.[2)]

1865년부터 1910년대까지는, 국내에서 고려대장경 전체를 인출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시기이다. 조선전기 이래 오랜만에 나타난 경향이어서, 당시 인경에 참여한 사람들도 해인사 大藏經版과 목록을 점검하고 정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65년 인경 시 경판과 『大藏目錄』을 대조하며 한 차례 정리하였고[3)] 이후 1915년 총독부의 인경 때에는 그 준비 작업부터 작업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사료 부족으로 대장경 인출의 실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고려 말이나 조선전기의 실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일제시기 고려대장경 인출 관련 보고서는 1910년 村上龍佶[무라카미 류키치]의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와 1915년 朝鮮總督府 編의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1939년 高橋亨[다카하시 도오루]가 작성한 「高麗大藏經印出顚末」[4)]의 3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는 궁내부 관리에 의해 제작된 보고서로 1915년 고려대장경 인경 사업의 사전 조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필자는 규장각 소장 1915년 고려대장경 인출본을 살펴보다가, 관련 자료가 남아 있고 보고서 역시 간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보고서들은 그간 잘 알려지지 못했거나, 알려졌더라도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려대장경 인출의 실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고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 일제시기 고려대장경 인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제 막 제출되기 시작한 실정이다.[5)]

---

2) 해인사에 소장된 고려대장경에 대해 1962년 국보 제32호로 지정된 명칭은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陜川海印寺大藏經板)'이며, 2007년 6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명칭은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高麗大藏經板-諸經板)'이다.

3) 김방울, 2007 「月精寺 所藏 高麗再彫大藏經 印經本에 대하여」 『서지학보』 31, 173-174면.

4) 이 보고서는 1937년 만주국 황제의 요청으로 고려대장경을 인출한 후 제출된 것이다. 당시 현장 책임을 맡은 高橋亨는 인출 완료 후 1939년 5월에 필사본으로 「高麗大藏經印出顚末」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1951년 天理大學 朝鮮學會에서 발행하는 『朝鮮學報』 2에 「高麗大藏經板印出顚末」을 게재하였다(최영호, 2019 「1937년 해인사대장경판의 印出佛事와 滿洲國 溥儀」 『만주연구』 27, 122면).

5) 일제시기 고려대장경 인경에 관한 연구로 최영호, 2014 「해인사 소장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일제강점기 補刻板 조성현황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0; 최영호, 2019 위의 논

일제시기, 특히 1910년대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의 조사와 인경은 당시의 해인사 대장경 판목 보관 상태를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기록을 남겨 고려대장경 인출 전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10년대 고려대장경 관련 보고서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와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에 대한 기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고려대장경 인경본들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補遺目錄」의 기원과 補遺板 인출 배경

조선전기까지 누차에 걸쳐 고려대장경을 인출하던 양상은 기록상 연산군대를 기점으로 사라지고 한동안 대장경 전체를 인출하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조선 고종 2년이던 1865년에, 오랜만에 고려대장경 전체 2부를 일괄 인출하게 된다. 1865년 南湖永奇 禪師가 화주가 되어 南溟 長老와 함께 모금하여 고려대장경 2부를 인출한 것인데, 이 때 監役은 部林大德이고 淸霞, 影應, 通虛上人 등이 참여하고 海冥壯雄이 誌를 붙였다.[6]

위 인경을 포함한 역대 고려재조대장경 인출은 최소한 아래 〈표 1〉[7]과 같은 역사를 갖는다.

문 참조.

6) K.1514 「補遺目錄」 海冥壯雄의 誌; 김방울, 2007 앞의 논문, 173-174면.

7) 〈표 1〉은 김방울, 위의 논문, 167-168면 〈표 1〉을 기본으로 하며, 원전 기사를 확인하고, 李能和, 1918 『朝鮮佛敎通史』 上, 新文館, 624면; 李智冠, 1992 「大藏經傳來 再雕本印經考」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敎文化思想史』 上, 伽山佛敎文化振興硏究院, 58-59면; 朴相國, 2008 「大谷大學의 高麗版大藏經」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국립문화재연구소, 378면; 오용섭, 2005 「「搨印節目」으로 본 世祖年間 大藏經 印出」 『서지학연구』 30, 325면; 馬場久幸, 2016 『日韓交流と高麗版大藏經』, 法藏館, 74면 등을 참고하여 정리, 보완한 것이다. 논자마다 세세한 정리가 상이하나 1915년 인출 고려대장경 1부가 영국에 있다는 것과 같이 확실히 오류임이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는(현재 일본 宮內廳 書陵部에 소장됨), 가급적 논의를 종합하는 쪽으로 정리하였다.

〈표 1〉 고려 재조대장경의 인출

인출시기		부수	봉 안 처
1318	충숙왕5	미상	靈鳳山 龍岩寺
~1338	충숙왕복위7년	미상	天和禪寺
1378	우왕4	미상	敬天寺
1381	우왕7	1부	神勒寺
1393	태조2	미상	演福寺
1399	정종1	미상	
1413	태종13	미상	開慶寺
1439	세종21	미상	興天寺
1458	세조3	3부	海印寺, 興天寺, 禮曹
1459	세조4	47부	報恩, 福泉寺에 1부, 나머지는 전국 각사
1500	연산군6	3부	각 大刹
1865	고종2	2부	五臺山 寂滅寶宮, 雪岳山 五歲庵
1899	광무3	4부	三寶寺刹 각1부, 1부는 각 사찰에 나눠줌
1915	대정4	3부	규장각, 일본 宮內廳 書陵部, 일본 교토 泉涌寺
1937	소화12	2부	만주국 황제, 영변 普賢寺
1963 ~ 1968		13부	동국대, 성균관대, 동아대, 중동고 등 국내 4부, 四天王寺, 比叡山, 高野山, 日本國會圖書館 등 일본 4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1부, 영국 2부, 호주 1부, 대만 1부

현재 고려대장경의 연구는 위 〈표 1〉에서 1865년(고종 2)의 인출을 큰 분기로 하고 있다. 1865년 인출하여 오대산에 안장한 고려대장경은 현재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대장경으로, 일부 책의 결락이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고려대장경 가운데 最古本이다.[8] 지난 1996년에 (사)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고려대장경 전산화를 수행하고 2006~2008년에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여 대장경 전체 이미지와 원문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 당시 바로 이 1865년 인경본을 스캔하여 그 이미지를 서비스하였다.[9] 1865년 인경본 가운데 결락된 부분은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影印本[10]으로

8) 이 대장경 관련하여 김방울, 2007 위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월정사 내에 보관하던 이 대장경은, 최근 월정사 아래 새로운 성보박물관이 완공되면서 이 박물관으로 보관처를 옮긴 바 있다.

9) (사)고려대장경연구소 홈페이지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으며, 해당 자료는 모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불교기록문화유

대체하여 이미지를 보완하였다고 한다.[11]

그런데 1865년 인경된 고려대장경 『大藏目錄』 卷下의 끝에는 새로 작성하여 補入한 목록 3면과 僧 海冥壯雄의 誌 1면이 붙어 있다. 이는 『대장목록』에 없는 경판을 모아 새로 추가한 목록 15종으로, 이것이 현재 학계에서 일명 「補遺目錄」으로 불리는 부분이며 이에 해당하는 판목이 소위 '補遺板'이다. 이 「보유목록」은 책 끝에 붙은, 매수로 겨우 2장짜리 목록이나 현재 고려대장경 일련번호 부여 체계 내에서 K.1514의 독립 번호를 부여받아 고려대장경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다른 경권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려대장경의 일련번호는 K.0001 『大般若波羅蜜多經』 - …… - K.1513 『華嚴經探玄記』 - K.1514 「補遺目錄」까지 총 1514종으로, 고려대장경 연구에 있어 기본 범주가 된다.[12] 이 고려대장경의 일련번호 부여 체계 'K.no'는 앞서 언급한 동국대학교 역경원 고려대장경 영인본을 제작할 당시 매긴 것이며 기본적으로 독립된 경전에 고유 번호를 준 것이다. 『大藏目錄』[13]에 의거하여 각 경전마다 순서대로 編次를 매기고, 독립 경전 안에 병합된 경전은 'K.438-1' 등과 같이 屬番號를 주어 표기하였다.[14]

산아카이브(URL : http://kabc.dongguk.edu)'를 통해 고려대장경 스캔 이미지와 원문이 서비스되고 있다.[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홈페이지 '사업소개'(URL : http://kabc.dongguk.edu/etc/intro?type=02)]

10) 동국대학교 역경원 영인본 제작은 1959년부터 시작하여 1976년에야 제48권의 總目錄·解題·索引을 끝으로 완간을 보았다(東國大學校譯經院, 1994 『高麗大藏經 第四十八: 總目錄·解題·索引』, 3면, 「刊行辭」). 이는 동대학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937년 인출본을 저본으로 해인사 소장본, 통도사 소장본과 비교 대조 후 제작하였다고 한다(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2013. 5. 7 「통합대장경 데이터 현황 보고서」). 그러나 1937년 인출한 고려대장경 2부는 각각 만주국과 보현사로 보냈으므로,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고려대장경 인출본은 1963~1968년 김두호씨 인출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馬場久幸, 2016 「東國大學校本高麗大藏經について -高麗大藏經の卷數を中心に-」 『印度學佛教學研究』 52-2, 184면).

11) 보완분은 전체의 약 9.54% 정도라고 한다(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위의 보고서, 2면).

12) K.0001~K.1514까지 고려대장경 전체 원문 및 번역문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의 '통합대장경'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13) K.1405.

14) 번호를 매긴 원칙에 대하여는 東國大學校譯經院, 1994 『高麗大藏經 第四十八: 總目錄·

고려대장경의 전체 일련번호 체계로 볼 때 K.1~K.1498은 원래 고려대장경으로 여겨지던 부분이라면, K.1499~K.1513의 15종에 별도로 K.1514 「보유목록」까지 산정한 16종은 1865년에야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는 것이다.[15]

그런데 「보유목록」을 '보유목록'이라고 부른 것은 이를 작성한 해명장웅이 아니다. 해명장웅은 '...빠진 것을 새기도록 하여 옛 기록에서 누락된 것을 보충(...命剞劂氏旧錄漏者已補)'[16]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1910년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에서 해명장웅의 목록 부분을 '目錄補遺'[17]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1865년 이래 해명장웅이 작성한 목록은 기존 목록에 대한 '補遺'로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915년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에서 '補遺目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18] 당시 고려대장경 인출 실무를 담당하던 小田幹治郞[오다 미키지로]는 '大藏經印刷終了報告'를 작성하면서 대장경 인출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 판목을 정리한 후 '大藏經板 가운데 目錄 3卷과 補遺目錄 2葉'이 있다고 細註로 기록하고 있다. 즉 1910년대 위 보고서들에서 해명장웅이 추가한 목록을 '목록보유' 혹은 '보유목록'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용어가 널리 수용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보유목록」을 '고려대장경'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아닌가의 논쟁은 잠시 미뤄두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인경된 전체 경전의 범위이다. 즉, 1865년 이전까지 인출된 고려대장경의 범위가 K.1~K.1498이었다면 그 이후 인출되는 고려대장경은 K.1~K.1514까지를 포함하는 범위를 갖게 되었으며, 「보유목록」 부분이 새로 추가된 것임을 인지하고도 계속 인경 범위에 포함시켜 왔던 것이다.

解題・索引』, 20면, 高麗大藏經 總目錄 凡例 참조.

15) 최영호, 2017 「海印寺大藏經板의 구성체계와 범위」 『석당논총』 68, 188-189면. 최영호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가운데 『大藏目錄』과 그 목록에 입장된 개별 경전 1,498종에 대해 '大藏', 나머지는 '外藏'으로 지칭하고 있다.

16) K.1514 「補遺目錄」 海冥壯雄의 誌.

17) 村上龍佶, 1910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 27면. 이 보고서 관련 정보는 본고 3장 참조.

18) 朝鮮總督府 編, 1915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大藏經印刷終了報告' 第2張. 이 보고서 관련 정보는 본고 4장 참조.

요컨대, 현재 고려대장경 연구의 많은 부분은 위 〈표 1〉에서 제시한 고려대장경을 추적하고 그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 위에 성립하였다. 특히 1865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인출 시 「보유목록」이 『대장목록』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고려대장경을 인출할 때는 모두 보유판을 포함하여 인출하게 되었다.[19] 그 결과 「보유목록」이 포함된 고려대장경의 목록은 관련 조사와 연구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는 고려대장경의 범위와 관련한 학계의 보유판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하였으나, 『대장목록』과 「보유목록」을 포함한 범위가 K.0001~K.1514에 이르는 현대 고려대장경 일련번호 체계의 근간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해인사에 보관된 고려대장경판을 다시 꼼꼼하게 조사하여 3부를 인출하는데 이때에도 보유판이 포함되며, 그 인출본이 규장각 등의 기관에 전질 남아 있어 당시의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1865년 이래 보유판을 포함하는 고려대장경 인출의 새로운 경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10년대의 관련 보고서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는 이들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는 宮內府 事務官이던 村上龍佶[무라카미 류키치]가 1910년 4월 17일부터 나흘간 합천 해인사 소장 대장경판 상태를 조사한 후 동년 5월 12일에 궁내부에 올린 203쪽 짜리 인쇄본 보고서이다.[20]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 보고서인 이 자료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인지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거의 인용되지 않았으나, 1917년 金雲臯의 글에 '隆熙四年 舊韓國 宮內府의 調査'라고 인용한 것을 보아 당시 세간에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21]

---

19) 고려대장경의 범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최영호, 2017 앞의 논문 참조.

20) 村上龍佶, 1910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는 일본 東京経濟大學의 東京経濟大學學術機關リポジトリ에서 흑백 복사본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URL : https://repository.tku.ac.jp/dspace/handle/11150/1700, 최종검색일 : 2020년 7월 15일).

보고서의 작성자인 村上는 1907년 궁내부 大臣官房 事務官으로 임명되었고[22] 1908년 「대한제국 직원록」에 '宮內府 大臣官房 調査課 事務官 주3, 6급'으로 등장하고 있으며,[23] 본 보고서에서 '궁내부 사무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그는 대한제국기에 궁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조선총독부가 들어선 후에는 李王職 事務官으로 활동한 인물이다.[24]

이 시기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일련의 古跡調査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인사에 고려대장경의 판목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村上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다.[25] 村上가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 그는 1910년 4월, 궁내부 사무관으로 전라남도 무주 적상산 사고를 조사하였다. 이후 경상북도 합천 해인사로 가서 대장경판의 상태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게 된다. 이에 적상산 사고 조사 후 4월 15일에 무주를 출발하여 4월 17일에 경상북도 합천 해인사에 도착하였다. 도착한 4월 17일부터 4일간 해인사에 머물며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였다.[26] 이를 정리하여 1910년 5월 12일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로 작성하여 宮內府大臣 閔丙奭과 宮內府次官 小宮三保松[고미야 미호마쓰]에게 올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7]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해인사의 위치와 건조물, 관리상태, 재산, 승려, 장경각의 구조와 대장경판의 상태, 대장경의 인쇄,[28] 대장경판 雕造年代 추정, 대장경판에 대한 의견, 해인사 經板閣 도면

21) 金雲臯, 1917 「海印寺와 大藏經」 『朝鮮佛敎叢報』 7, 三十本山聯合事務所, 3면.

22) 『承政院日記』 3215책, 순종 1년(1907) 10월 26일 甲申.

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URL :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최종검색일 : 2020년 7월 15일).

24) 조선총독부 관보 제130호, 명치 44년(1911) 2월 1일 "任李王職事務官,敍高等官六等 村上龍佶."

25) 永島廣紀, 2013 「寺內正毅と朝鮮總督府の古蹟・史料調査」 『櫻圃寺內文庫の硏究』, 勉誠出版, 80면.

26) 村上龍佶, 앞의 보고서, 1면.

27) 위의 보고서, 51면.

28) 村上의 위의 보고서, '八. 大藏經の印刷' 부분에는 1909년 해인사에 靑木由松[아오키 요시마츠]라는 사람이 와서 고려대장경 일부를 인출한 것에 대한 기록 '靑木由松藏經印刷顚末'이 수록되어 있는데, 靑木는 대장경 인출 작업 중 판목 배열 순서를 어지럽히고 대장

등을 다양하게 정리하였다. 보고서 말미에 『대장목록』(K.1405) 上中下와 「보유목록」(K.1514)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고, 마지막에 「海印寺經板閣側面圖」를 크게 싣고 있다.

대장경판의 상태에 대해, 2동의 藏經閣에 86686매의 경판이 5층의 版架에 매층 세로로 2열씩 배열된 상황 등을 기록한 후 판목의 크기와 모양, 보관 상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29]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판목을 86686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 수치가 어떤 판목에 대해 어떤 과정을 통해 산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음 〈표 2〉는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에 수록된 해인사 대장경의 경판과 卷紙數이다.

〈표 2〉「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 수록 해인사 대장경 현황[30]

목록 종류		卷數	紙數	총 경판수
『대장목록』 수록분	卷上	2326	54781	86686枚
	卷中	2490	63224	
	卷下	1731	39448	
	합계	6547	157453	
목록보유 수록분		233	5437	
총합		6780	162890	

위 표의 수치 가운데 고려대장경판의 수 86686매는 학계에서 밝혀진 수보다 월등히 많은 수이나[31] 판목을 어떤 방법으로 헤아렸는지 알 수 없다. 卷紙數의 경우, 표에서 드러나듯 『대장목록』과 '목록보유', 즉 「보유목록」의 수치를 토대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 인경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는 등 해인사와 여러 문제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29) 村上龍佶, 위의 보고서, 24면.

30) 〈표 2〉는 위 보고서 27면과 46-47면의 수록 수치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며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실제 판목 수 및 경권 수와 차이가 있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실제 판목 수와 경권 수를 조사하는 것은 본고의 고찰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1910년대 각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정확히 소개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자 한다.

31)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의 수는 최영호, 2017 앞의 논문, 179면 [도면 1] 참조.

또한 村上는 '목록보유' 부분도 고려 고종대에 모두 판각되었다고 보고, 보고서 맨 뒤에 『대장목록』의 내용 전체를 옮기면서 『대장목록』 끝의 보유된 부분과 海冥壯雄의 誌까지 그대로 적어 넣었다. 이는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범위를 당시 『대장목록』과 「보유목록」에 수록된 내용 전체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살폈듯 이 보고서는 1910년 4월의 해인사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5월에 궁내부 대신 및 차관에게 올라간다. 시기상 대한제국기이나 조선통감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村上의 보고서가 작성된 때는 5월 12일이다. 그런데 그 달 말인 5월 30일에 寺內正毅[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조선통감으로 임명되고 동년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다. 훗날 寺內가,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經閣에 고려대장경이 보존되어 있음은 유식자들 사이에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조선총독부 시정 초기에 바빠서 정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32] 해인사 대장경판에 대한 보고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해로부터 5년 후 寺內는 해인사에 직접 방문하여 경판을 보고 나라의 보배라고 극찬하며 그 인출을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1915년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전체를 조사하여 인경하게 되며, 인경 범위는 1865년 「보유목록」에 오른 경전들, 이른바 補遺板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 내용은 다음에 소개하는 보고서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1910년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가 작성되고, 1915년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작성과 고려대장경 전체 인출로 인해, 1865년 보입된 「보유목록」은 고려대장경의 범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4.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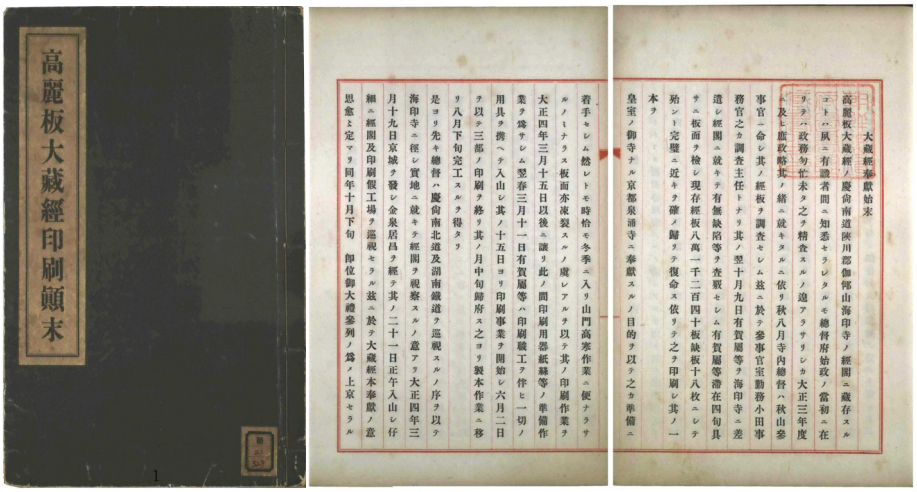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은 1915년에 조선총독부가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을 조사, 인출한 후 그 과정 전반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이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보고서는 1931년 京城의 朝鮮印刷株式會社에서 간행한 신연활자본의 36장짜리 보고

32) 朝鮮總督府 編, 1915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제1면.

서이며 책 크기는 약 27.0×19.0㎝이다.[33]

본 보고서의 존재는 관련 학계에 일찍부터 알려진 바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원문 이미지 자료도 공개되어 있어 열람이 용이하다. 또한 내용이 상세하고 해인사 고려대장경을 인쇄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자료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단편적으로 인용할 뿐 구체적 내용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34]

무엇보다 위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에 대해 살펴보면 두 가지 의아한 점이 생기게 된다. 하나는, 이 자료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는 1915년 고려대장경 인출의 보고서로 알려진 이 자료가 왜 1931년에 간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명확히 알기 위하여 이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1931년 간행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35]

33)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원본 이미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URL : https://www.nl.go.kr, 최종검색일 2020년 7월 15일).

34) 1915년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의 번역으로 鄭炳浣 譯, 1975 「高麗大藏經(再雕)印刷顚末」 『도서관』 200이 존재한다. 다만 이 번역본은 小田幹治郎의 「大藏經印刷終了報告」만 싣고, 앞부분의 「大藏經奉獻始末」의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다.

1) 내용 구성과 작성 주체

자료 작성 주체와 관련하여, 동일 자료의 기관별 혹은 연구자별 서지사항을 비교해 보면 저마다 조금씩 다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예컨대 규장각 소장 자료인 청구기호 '海士일10'과 '한은40'의 경우, 加藤灌覺[가토 간가쿠] 著, 朝鮮總督府 撰으로 기록하고 있다.[36] 이는 규장각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서지사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 보고서 작성 주체에 대해 대체로 加藤灌覺, 小田幹治郎[오다 미키지로], 朝鮮總督府, 寺內正毅 등으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 저자에 대한 이해가 이렇듯 부정확한 까닭은 무엇보다 이 보고서 내용과 형식에 대한 몰이해에서 온다. 이 보고서는 판권 부분에 저자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보고서의 구조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31년 간행된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의 구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1931년 3월 28일에 쓰인 加藤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다. 두 번째는 「大藏經奉獻始末」 부분, 세 번째는 1915년 9월 11일자 小田의 「大藏經印刷終了報告」이다.

보고서의 구성을 순차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1931년 간행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의 구성

no.	면수	내용
①	제1면 ~ 제2면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序 (加藤灌覺, 1931년 3월 28일)
②	제3면 ~ 제13면	大藏經奉獻始末
③	제14면	공백면
④	제15면 ~ 제71면	大藏經印刷終了報告 (小田幹治郎, 1915년 9월 11일)
⑤	제72면	간행사항 (1931년 6월)

35)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제공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청구기호 한古朝21-328-6-2) 이미지.

36)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검색해도 마찬가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 자료 3건이 제공되고 있는데 모두 같은 자료임에도 하나는 加藤灌晃 著(청구기호: 古027-11-42), 小田幹治朗 著;朝鮮總督府 編(청구기호: 한古朝21-328-6-2), 朝鮮總督府 編(청구기호: 한古朝21-204)로 각각 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사항의 小田幹治'朗'은 '郎'의 誤記이다(URL : http://www.nl.go.kr, 최종검색일 : 2020년 7월 15일).

위 〈표 3〉에서 ① 부분에 수록된 加藤灌覺의 글은 원래 별다른 제목이 없다. 다만 내용상 서문에 해당하므로 편의상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序'라고 제목을 넣어주었다. 이 부분에서는 加藤가 보고서를 출간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加藤의 서문에서, 사망한 寺內(1852~1919)의 지시로 1915년(大正 4) 3월 15일~6월 2일까지 80일간 고려판대장경 6566권, 보유 236권의 인쇄를 완성하고 그 顚末을 기록한 것은 후세에 전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자 조선 文籍 연구의 한 사료로 남기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1931년 3월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한 사업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중 『一切經音義』를 백 부 인쇄하게 되어, 사업을 담당한 朝鮮印刷株式會社에서 사업 참여를 기념하는 의미로 寺內의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을 인쇄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 보고서를 학계에 알리고, 또 번잡한 오류가 많은 등사본 대신 인쇄물로 제작하여 오래도록 남기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加藤는 이 뜻에 동조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⑤ 간행사항 부분에서도 확인이 된다. 1931년 간행본 마지막 면에는 '昭和六年六月 /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 三番地 / 朝鮮印刷株式會社 / (以印刷代謄寫)'라는 간략한 간행사항이 적혀 있다. 내용의 마지막 행 괄호 안의 밑줄 친 내용은 '인쇄로써 등사를 대신한다'라는 것이니 위 ① 加藤의 서문에서 서술한 내용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915년에 제출된 보고서가 1931년에 인쇄물로 간행된 까닭은, 애초에 나온 보고서가 있었으나 등사본으로 상태가 썩 좋지 못하고 소량만 제작되어 유익한 내용임에도 학계의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② '大藏經封獻始末' 부분에는 고려대장경을 인쇄하는 목적이 일본 천황가의 원찰인 泉涌寺[센뉴지]에 바치기 위함임을 밝히고, 경판 조사부터 인경하여 봉헌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증빙으로 몇 가지 문서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②에 수록된 문서 중 첫 번째는, 寺內가 현 천황에게, 죽은 천황을 추모하기 위해 센뉴지에 고려대장경 인경본을 바치겠다고 아뢴 '上奏案'이다. 상주안 끝에

는 고려대장경을 설명하기 위한 '海印寺高麗大藏經板の由來'가 붙어있다. 이 寺內의 상주문은 宮內大臣을 통해 천황에게 전달되고, 천황은 궁내대신 波多野敬直[하타노 요시나오]를 통해 대장경 봉헌에 만족하며 재가한다는 뜻을 寺內에게 내린다. '海印寺高麗大藏經板の由來'에 뒤이어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문서를 수록한 것이다. 세 번째는 寺內가 봉헌한 고려재조대장경을 수령했다는 센뉴지 장로의 수령증이다. 그 뒤에 "대장경 인쇄와 관련한 小田 사무관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라는 내용에 이어 ③의 공백 한 면을 두고 ④ 小田의 '大藏經印刷終了報告'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표 4〉 1931년 간행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에 수록된 자료들

no.	자료 종류		자료 작성 시기 및 작성자
①	加藤의 序		".....昭和六年三月二十八日 / 伽耶山海印寺の東軒に於て / 加藤灌覺"
②	大藏經奉獻始末	寺內의 上奏案	".....大正四年十月三十日 / 朝鮮總督伯爵寺內正毅"
			海印寺高麗大藏經板の由來
		천황의 재가를 전달하는 문서	".....大正四年十月三十日 / 宮內大臣男爵波多野敬直 / 朝鮮總督伯爵寺內正毅殿"
		泉涌寺 長老의 受領證	"證.....大正四年十二月四日 / 泉涌寺長老大僧正智等印 / 朝鮮總督伯爵寺內正毅殿"
④	小田의 大藏經印刷終了報告		"大藏經印刷終了報告.....大正四年九月十一日 / 事務官 小田幹治郎 / 朝鮮總督伯爵寺內正毅殿"

위 〈표 4〉는 1931년 간행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에 수록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 이들 내용을 시간적 순서로 재배열하면 ④-②-①이 된다. 小田가 고려대장경 인쇄를 마쳤다고 寺內에게 보고하자, 寺內는 이 대장경을 센뉴지에 봉헌하겠다는 상주안을 올렸으며, 천황의 재가를 받아 센뉴지에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은 것이다. 이 일련의 내용은 1915년 등사본 보고서로 소량 제작되어 관련자들에게 배포되나, 인쇄 상태가 좋지 못하고 소량이라 여러 사람에게 보일 수 없어 1931년에 같은 내용을 다시 인쇄한다는 ① 加藤의 序가 붙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위 〈표 4〉를 보면 본 보고서 작성 주체에 대한 기존의 혼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법하다. 위 보고서는 기관 혹은 논자에 따라 저자를 小田幹治郎, 寺內正毅, 加藤灌覺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위 ①, ②, ④의 각 자료마다 문서 작성자명으로 加藤灌覺, 寺內正毅, 小田幹治郎 등이 등장하면서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② '大藏經奉獻始末'의 첫 부분에, 寺內 총독이 秋山 참사관에게 명하여 해인사 경판을 조사하도록 하고, 小田 사무관이 조사 주임이 되며, 有賀 屬 등이 해인사에 파견되어 체류하며 조사하도록 하였음을 적고 있다.

秋山는 秋山雅之介[아키야마 마사노스케]로 참사관실의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1910년 11월부터 조선총독부 참사관실 참사관에 임명되었고 1916년에는 총독부 중추원 서기관장의 사무를 맡으면서 중추원 업무를 관장하였다.[37]

小田幹治郎(1868~1925)는 '大藏經印刷終了報告'를 작성한 핵심인물로 일제의 舊慣制度調査事業[38]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일본 사법성에서 근무하다 재판소 판사를 지냈으며, 1907년 한국 정부에 고빙되었다. 1907년 한국 정부의 법무보좌관으로 활동하였고 1908년 1월 1일 법전조사국이 출범할 때 사무관으로 임명받고, 1910년 조선총독부 취조국이 신설되자 조사 업무의 사무관으로 옮겨갔으며 1912년 3월에는 참사관실의 조사 사무를 담당하였다. 즉 小田는 법전조사국, 취조국, 참사관실을 두루 거치며 조사 업무의 고위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였던 것이다.[39] 특히 小田는 관습조사의 실무를 사실상 관장하고 병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여 후에 조선총독부 내에서 한국 관습의 권위자로 널리 인정받았다.[40]

---

37) 김태웅, 1993「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 · 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규장각』16, 111면; 이영학, 2018「일제의 '구관조사사업'과 그 주요 인물들」『역사문화연구』68, 131면.

38) 구관제도조사사업은 1910년 8월 조선 강점 이후 식민 통치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 사법재판의 준칙으로 삼을 관습을 제시하여 법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었다(김태웅, 위의 논문, 104면).

39) 이영학, 앞의 논문, 123면; 小田梢, 1931『小田幹治郎遺稿』, 中外印刷.

40) 이승일, 2013「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의 한국관습조사와 관습법 정책」『한국민족문화』46, 4면.

有賀는 有賀啓太郎[아리가 케이타로]로 생몰연대는 불분명하며, 해인사 고려대장경 인출 당시 총독부 참사관실 屬으로 근무하였다. 그는 동경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재판소 서기로 취직하였다가, 1908년 통감부의 특허국 심사관으로 전임되어 왔다.[41] 이후 총독부 취조국을 거쳐 참사관실 속으로 활동하였으며 고려대장경이나 조선왕조실록 등의 자료를 정리한 실무 종사자였던 것으로 보인다.[42] 특히 그는 일본 도쿄와 교토 일대에 소장된 대장경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합천 · 고령 · 영천 등 경상도 일대에 산재해 있는 版木도 조사한 바 있어,[43] 1914년 대장경 인출 준비 작업 전부터 관련한 조사에 꾸준히 동원되어 온 현장 조사 실무자임을 알 수 있다.

위 인물들로 보아, 해인사 고려대장경 조사와 인출 작업은 총독부 참사관실에서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사관실은 총독부의 구관제도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으며[44] '종교와 사원의 제도'가 사업의 주요 항목 중 하나였음을 생각한다면 총독부 참사관실에서 조사를 담당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은 위 〈표 3〉과 〈표 4〉로 살펴 보건데 구성상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④ 조선총독부 참사관실 사무관이던 小田가 1915년 9월 11일 올린 '大藏經印刷終了報告'이며, 그 앞에 寺內가 고려대장경을 센뉴지에 봉헌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내용 ② '大藏經封獻始末'을 추가한 것이다. 즉, 내용상 첨부된 문서의 작성자에 따라 여러 인물의 이름이 위 보고서 내에 등장할 뿐, 이 자료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의 조사부터 인쇄, 센뉴지에의 최종 봉헌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 · 편찬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은 寺內의 지시로 참사관실에서 실무를 담당하여 고려대장경의 조사와 인출,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복합적 편집물이다. 따라서 최종 결과물로서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의 작성자는 小田나

41) NHK取材班 編著, 2011 『朝鮮王朝『儀軌』百年の流轉』, NHK出版, 234-235면.

42) 김태웅, 앞의 논문, 109-110면.

43) 「조선관습조사보고서 해제 DB」 자료 관리기호 B-1_081, B-1_154 참조(URL :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EBZ-3107).

44) 김태웅, 앞의 논문, 104면.

寺內 등의 개인이라기보다는, '朝鮮總督府 編' 혹은 '朝鮮總督府 參事官室 編'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다양한 간행본의 종류

또한 이 보고서의 간행 시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필자는 자료를 조사하다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가 여러 시기에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앞서 加藤의 서문에서 1915년의 등사본과 1931년 인쇄본이 언급되는 것과 같이, 현재 이 보고서의 여러 간행본이 유통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경우에 따라 약간의 순서만 달리하여 다양한 시기에 간행되었으므로, 그 간본을 모두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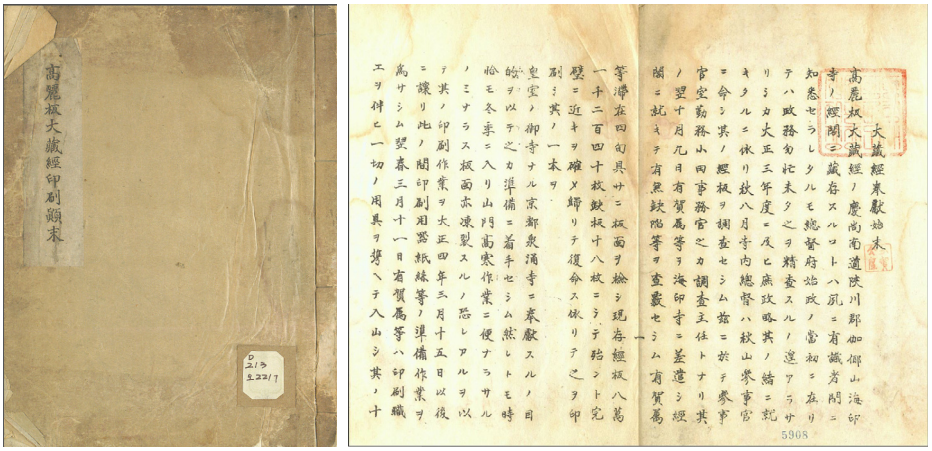
(1) 1915년 등사본

우선 언급할 것은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인쇄 완료 직후 발간된 조선총독부의 보고서이다. 등사본에 발행일이 나오지 않으므로 정확한 발행년월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小田의 보고서가 1915년 9월 11일로 되어 있고, 동년 12월 4일에 센뉴지에서 고려대장경 모두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 등사본 보고서는 빠르면 동년 12월 중하순이나 1916년 초 정도에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는 1931년 간행본의 서문에 드러나듯, 등사본으로 소량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때문에 이 등사본은 흔치 않은데, 국내의 경우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에서 소장하고 있다.[45]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의 이 보고서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第1張 右面 우측 상단에 '동국대학교도서관장서지장'이라는 장서인이 찍혀있고, 그 아래로 '大藏經封獻始末'이라는 제목 끝에 '有賀文庫'로 추정되는 방형 인장이 찍혀 있다. 이로 보아 앞서 조선총독부의 대장경 자료 정리 및 현장 조사 실무자였던 有賀啓太郎가 소장했던 보고서가 입수되었던 것으로

45)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高麗大藏經印刷顚末」(청구기호 D 213 오221ㄱ). 이 자료명은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의 誤記이다. 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본 자료 전체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다(URL : https://lib.dongguk.edu, 최종검색일 : 2020년 7월 15일).

추측된다. 본 보고서는 12행 19자, 無界의 4침 선장의 油印本, 즉 등사본이다. 책 크기는 26.7×19.0cm이며 내지는 총 45장이다. 아래 첨부하는 〈그림 2〉는 본 보고서 표지와 제1장이다. 펼쳤을 때 右面과 左面을 합하여 1장으로 셈하여, 가운데 접히는 곳에 張次를 매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 동국대 소장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등사본[46]

(2) 1916년 『朝鮮彙報』 수록본

조선총독부가 위 보고서 (1)을, 『朝鮮彙報』 1916년 4월 1일자에 '大藏經奉獻顚末'이라는 제목으로 수록하였다. 다만, (1)과 순서가 다르다. 원래 보고서 앞부분인 ② '大藏經奉獻始末'이 ④小田의 '大藏經印刷終了報告' 뒤로 가서 〈표 3〉과 같은 ②-④가 아닌, ④-②의 순서를 갖는다. 이는 대장경판 조사와 보고, 센뉴지 봉헌이라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1923년 泉涌寺[센뉴지] 간행본

1923년 9월에 일본 교토에 위치한 센뉴지에서 이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센뉴지 간행본은 국내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 출간된 관계로 馬

46) 위 각주. 논문 게재를 위한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해 주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측에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한다.

場久幸[바바 히사유키]를 비롯한 일본 연구자들의 글에 종종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센뉴지는 일본 천황가의 원찰로, 이 보고서의 결과로 인출된 고려대장경의 봉안처이다.

(4) 1931년『小田幹治郞遺稿』수록본

1931년 3월, 小田가 죽고 그 아들 小田梢에 의해『小田幹治郞遺稿』[47]가 출간되면서『朝鮮彙報』에 수록된 (2)가 그대로 실려 있다.[48]

(5) 1931년 朝鮮印刷株式會社 간행본

1931년 6월, 조선인쇄주식회사에서 간행하였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加藤灌覺의 서문이 수록되어 이 시기에 보고서를 다시 간행하게 된 정황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출간되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규장각 등 국내 다수의 기관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이 이 보고서를 흔히 참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규장각 소장「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청구기호 '海士일10'과 '한은40',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미지 제공되는 책들도 모두 이에 해당한다.

(6) 연대불명의 필사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한지에 먹과 붓을 사용하여 손으로 직접 필사한 보고서「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청구기호 1730-19가 소장되어 있다. 이 필사본 보고서는 12행 19자에 내지 45장인 것과 필사 순서, 행갈이 등이 모두 보고서 (1)과 동일하므로, (1)을 저본으로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사 시기와 필사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47) 小田梢, 1931 앞의 책.

48)『小田幹治郞遺稿』는 일본 東京經濟大學 東京經濟大學學術機關リポジトリ에서 흑백 복사본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URL : https://repository.tku.ac.jp, 최종검색일 : 2020년 7월 15일).

3) 보고서 내 고려대장경 帙 · 種 · 卷數의 이해

이상에서 살펴본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은 조선총독부 참사관실 담당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참사관실 屬 有賀는 1915년 3월 11일 인쇄공 등 인부를 모집하여 해인사로 들어가며, 동년 3월 15일에 인쇄 작업에 착수하고 6월 2일에 80일간의 인쇄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제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고려대장경 안에는 이른바 「보유목록」에 속하는 경판들도 모두 인출되었다.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내에는 고려대장경의 종수와 권수가 여러 차례 언급된다. 그런데 언급되는 곳마다 숫자들이 달라서 당시 총독부에서 인경하여 센뉴지에 보낸 고려대장경의 종수와 권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얼핏 보아서는 잘 알 수 없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수록 인쇄한 고려대장경의 帙 · 種 · 卷數

	수록 부분	帙	種	卷	날짜/비고
a	小田의 大藏經印刷終了報告		1511	6805卷(册)[49]	1915.9.11
b	寺內의 上奏案		1511	6802卷	1915.10.30
c	京城에서 泉涌寺로 보낸 내용	660 (內另外目錄1帙)	1512 (內另外1種)	6779卷 (內另外14卷)	1915.12.2.~3 15函
d	泉涌寺 長老의 受領證	664	1512	6819册[50]	1915.12.4

위 〈표 5〉는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내에서 보이는, 당시 센뉴지로 보낸 고려대장경의 帙 · 種 · 卷數를 정리한 것이다.[51] 편의상 각 자료별로 a~d의 번호

49) 이 때 折本은 卷 단위로 제본하였다. 따라서 小田의 보고에서도 고려대장경 6805권에 대한 折本 册數는 6805권이라 하였다.

50) 위 각주 참고. 센뉴지 수령증에 '册'으로 되어 있는데, 센뉴지로 보낸 고려대장경은 권 단위로 제본한 折本이므로 수령증의 册은 卷과 같은 의미이다.

51) 이 수치는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의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한 것이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실제 판목 수 및 경권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를 붙였다.

표에서 보듯, 小田는 1915년 9월 11일 '大藏經印刷終了報告'에서 1511종 6805권이라고 하였다(a). 寺內의 동년 10월 30일 上奏案에서는, 인쇄한 고려재조대장경 '1511종과 6802권'을 보낸다고 하였다(b). 상주안 뒤에 수록된, 경성, 즉 서울에서 센뉴지로 보낸 내용은 '660질(內另外目錄1帙) 1512종(內另外1種) 6779권(內另外14卷) 15함'이며, 동년 12월 2일부터 3일에 걸쳐 센뉴지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다(c). 동년 12월 4일 센뉴지의 수령증에서 '664질 1512종 6819책'을 받았다고 하였다(d). 이 숫자들을 보면 보낸 측과 받은 측의 물량이 모두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보고서 내에서 숫자가 맞지 않아, 이는 학계에서도 이상하게 여겨지던 것이었다.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이 자료들은 우선 a와 b, c와 d로 짝지어 살필 필요가 있다.

a와 b를 보자. 시간순으로 보나 보고 체계로 보나, 총독인 寺內가 1915년 10월 30일 상주안에서 언급한 고려대장경의 수량은 동년 9월 11일 참사관실에서 小田가 올린 '大藏經印刷終了報告'에 의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小田의 '大藏經印刷終了報告'에서는 1511종 6805권이라 하였으나, 寺內는 종은 1511종이라 하였음에도 권은 6802권이라 하였다. 문제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비롯하여 어떤 고려대장경의 권수에서도 '6802권'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寺內가 상주안에 쓴 6802(六千八百'二')권이 小田의 보고 6805(六千八百'五')권과 다른 것은 '五'에 대한 誤記 '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c와 d를 보자. c와 d는 보낸 측과 받은 측의 숫자이므로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종수는 일치하나 질수와 권수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상주안 앞뒤에 수록된 내용에 단서가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쇄하고 제본하던 작업은 1915년 8월 하순에 마무리가 되었다. 인쇄한 해인사 고려대장경 1부를 천황가의 원찰인 센뉴지에 바치고자 했던 寺內는, 동년 10월 하순에 치러진 大正[다이쇼] 천황의 卽位大禮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면서 『大般涅槃經』 4질 40권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갔다. 寺內는 죽은 선대 천황의 명복을 빌고자 고려대장경

인출본을 센뉴지에 바치고자 한다는 상주안과 함께, 인쇄한 대장경 가운데 먼저 『大般涅槃經』 4질 40권을 궁내부를 통해 새로 즉위하는 다이쇼 천황에게 보이고 센뉴지로 송달케 한 것이었다. 아울러 천황의 즉위대례에 참석한 寺內는 센뉴지에서 장로를 직접 만나 가까운 시일 내에 대장경을 전부 寄納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렇듯 10월에 寺內가 인출한 고려대장경 가운데 『大般涅槃經』 4질 40권을 궁내성을 통해 센뉴지로 먼저 보냈으므로, 이후 서울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 보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낸 것이 '660질 1512종 6779권 15함'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寺內가 먼저 보낸 '『大般涅槃經』 4질 40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경전은 K.105 曇無讖이 번역한 40권본 『大般涅槃經』으로 보인다. 메이지 천황의 명복을 빌기 위한 고려대장경 봉헌에 있어, 석가모니불의 열반에 대해 설하고 있는 이 경전을 상징적으로 뽑아 우선 전달한 것이다. 小田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고려대장경 1부를 절첩본[折本]으로 제작하고, 한 卷을 한 册으로 만들며 千字文 函號에 의해 1函을 1帙로 제작하였다. 여기서 '帙'이란 절첩본을 몇 권씩 싼 '包匣'을 의미하는 것이다. 『大般涅槃經』은 함차 遐, 邇, 壹, 體에 각각 10권씩 속해 있으니, 센뉴지에 보낸 『大般涅槃經』은 4개의 포갑에 각각 10권씩 넣은 것이다. 따라서 '『大般涅槃經』 4질 40권'이 된다.

이를 알고 c와 d를 다시 살펴보자. 서울에서 보낸 660질이 센뉴지에서 664질이 된 까닭은 앞서 받은 『大般涅槃經』 4질까지 합친 전체에 대한 수령증이기 때문이다. 6779권을 보냈는데 센뉴지에서 6819권이 된 까닭은 먼저 보낸 『大般涅槃經』 40권을 합하였기 때문이다.[52]

마지막으로 a, b와 c, d의 종수와 권수를 살펴보자. 小田의 보고에 의하면 해인사 고려대장경에서 경전의 종수와 권수는 1511종 6805권이라 하였는데, 센뉴지로 보낸 내용 c와 센뉴지에서 수령한 결과인 d에서는 1512종 6819권이라 하였다.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c에 작은 글씨로 붙은 괄호안의 내용 '內另外目錄1帙', '內另外1種', '內另外14卷'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서울에서 보낸 660질 안에는 별도의 목록 1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목록 1질 1종이 들어갔으므로, 1511종에 별도로 1

52) 『大般涅槃經』 40권 + 경성에서 보낸 6779권 = 센뉴지 수령 6819권.

종이 더 포함되어 1512종이 된다. 6819권 안에 별도로 14권이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1질의 목록은 14권짜리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6805권에 14권을 더한 것이 바로 6819권인 것이다.

이상에서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내에서 당시 인쇄한 고려대장경의 질, 종, 권의 수가 내용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구명해 보았다. 그 결과, 이해하고 보면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내의 숫자들은 모두 상호간에 정합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지적해 둘 점은,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에 수록된 小田의 '大藏經印刷終了報告'에 의하면, 별책으로 「海印寺大藏經卷紙數調」와 「海印寺大藏經板整理報告書及附圖」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53] 이 자료를 아직 찾지 못하였다. 1914년 조사 당시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의 현황을 소상히 보여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자료의 출현을 기대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1910년대에 나온 해인사 고려대장경 관련 조사 보고서인, 1910년의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와 1915년의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을 소개하고 보고서 작성 경위 및 자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1865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전체의 印出佛事는 조선전기 이래 오랜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때 이른바 「보유목록」이 작성되고 보유판이 함께 인출되었다. 이는 고려대장경의 범위를 보유판까지 포함하여 인식하게 되는 일대 획기가 된다. 「보유목록」과 보유판은 이후 고려대장경 인출 시 항상 포함되었으며, 현대에 설정한 고려대장경 일련번호 체계에도 들어가면서 오늘날 고려대장경 범위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1910년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나 1915년 조선총독부의 해인사 고려대장경 인경 시 보유판을 포함하는 일련의 흐름은, 고려대장경의 범위를 「보유목록」 수록분까지 확장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 즉,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가 작성되고, 이후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작성과 고

53) 朝鮮總督府 編, 1915 앞의 보고서, 第2-3張.

려대장경 전체 인출로 인해 1865년 보입된 「보유목록」이 고려대장경의 범위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국내에 남아있는 고려대장경 인출본은 1865년본이 最古本이나 결권이 존재하며, 1915년 인출본은 1865년의 「보유목록」을 포함하면서 인출 경위가 확실한 결락 없는 완질의 선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인출되어 고려대장경 가운데 보관 상태가 좋고 접근이 용이한 자료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도 크다. 본고에서는 현재 고려대장경 인식 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와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의 간행 주체와 간행 배경, 보고서에 나오는 고려대장경에 대한 각종 수치 등을 고찰해 보았다. 사실 이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나, 막상 연구에 들어가면 보고서 내의 수치들과 1915년 대장경 인출 당시의 시대 상황, 사찰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한 몰이해가 큰 장애가 되었다.

일제시기 고려대장경에 대한 국내의 연구 성과는 대부분 서지학적 접근이거나 구관제도조사사업과 관련한 식민지배의 밑작업 정도로 보아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으나 이는 재고가 필요하다. 메이지시대 이래 일본 내부에서 성장한 불교학에 대한 수요와, 신앙과 공경의 대상이자 학문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여 동양에서 근대불교학이 처음 시작된 일본 불교계와 그에 대응하는 조선 불교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도 있다. 1865년 이래, 1899년, 1915년으로 이어지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전체의 인출은 현재 고려대장경 DB와 관련 연구의 범위를 규정짓는 중요한 흐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통해 국내 현존하는 고려대장경과 유관자료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다져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1915년 인출된 규장각 소장 고려대장경과 그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는 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주제어 : 고려대장경, 재조대장경, 해인사 대장경판, 보유판, 보유목록, 해인사대장경판조사보고서(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 고려판대장경인쇄전말(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투고일(2020. 8. 1), 심사시작일(2020. 8. 14), 심사완료일(2020. 8. 28)

〈Abstract〉

Investigation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and its Printing Proje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f the 1910s

Yang, Hye Won *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est in *Goryeo Jaejo-Daejanggyeong* and the progress of its printing work through the analysis of reports related *Goryeo Jaejo-Daejanggyeong* printed in the 1910s. There are two types of reports related to the printing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in the 1910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vestigation Report on Haeinsa Daejanggyeong Woodblocks*(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 published in 1910 and "*Printing Report of Goryeo Jaejo-Daejanggyeong*(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published in 1915.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nvestigation and printing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in the 1910s completely solidified the trend of publication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including the subjoinder edition since 1865. In the end, the printing range including the subjoinder edition became the modern research scope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Investigation Report on Haeinsa Daejanggyeong Woodblocks is a 203-page report posted on May 12, 1910, after Murakami Yukichi(村上龍佶), the official of Gungnebu (宮內府), was ordered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woodblocks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in Haeinsa in Hapcheon. This report summarizes the structure of the Janggyeonggak, the storage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and the condition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woodblocks, survey opinions, and a list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This report was written just before Terauchi Masatake(寺內正毅) became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At that time, the Japanese showed great interest in the fact that woodblocks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remained in Haeinsa.

Printing Report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is a report produced by the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ministration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in 1915 detailing the printing process and results of the Haeinsa *Goryeo Jaejo-Daejanggyeong* printing project. At the order of Terauchi, who was then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6,566 volumes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and 236 volumes of the subjoinder edition were printed for 80 days from March 15 to June 2, 1915. This report, which had been printed in a small amount as a copy print, was later re-produced as a Shinyeon-Whaljabon(new-lead printed), so it remained in various domestic institutions, and was known to academia early.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and system of this report, and the incomprehension of the background of the report, there is no unified opinion on the exact author or publication year of this report. Therefore, in this paper, for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from Kyujanggak, in particular, the publisher and background of publication of *Printing Report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and the 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kinds and volumes of *Goryeo Jaejo-Daejanggyeong* in the report were investigated.

Key Words : Haeinsa Daejanggyeong Woodblocks, *Goryeo Daejanggyeong*, Oda Mikijiro(小田幹治郎), Terauchi Masatake(寺內正毅), Haeinsa temple, printing Daejangkyeong